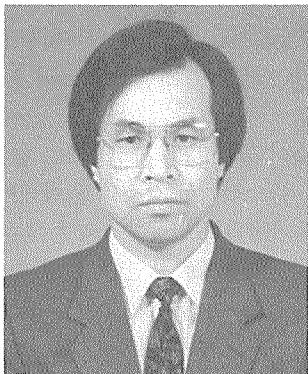


베트남의 석유개발투자



鄭 甲 珍

〈동력자원연구소 자원정책연구실 · 책임연구원〉

도미노 理論에 의해 인도차이나반도에 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美國이 1973년 파리협정에 따라 철군하고, 1975년에 남북베트남을 통일한 사이공정부가 「UN이란 죽은자(폐망한 남베트남)의 사인이나 규명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UN을 무시하며 1979년에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美國정부는 1975년부터 공산베트남에 대해 1년 단위로 수행해 오던 Embargo를 美國의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까지 베트남과 무역거래를 일체 금지하는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선포하고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관에게도

동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0여년의 수령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세로 高投資 및 高成長을 통한 급속한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 추진한 베트남의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6-1980)과 제3차 5개년계획(1981-1985)은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조치, 中國과의 국경분쟁 등의 외생적 요인은 물론 남베트남에 대한 급속한 共產改造政策에 의한 경제질서의 혼돈, 취약한 산업기반, 소비재 부족 등으로 완전히 실패하였다.

더우기 경제적 의존국이자 정치적 지도국인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가 개방화되자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국가계획목표의 비현실성과 정책 상의 결함을 비판하고 개혁주의 정부를 수립하여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개방화를 내용으로 하는 Doi Moi 정책을 선언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불황의 타개를 위해 1987년에는 外國人投資法을 제정하였고 국제환경의 개선을 위해 1988년에는 캄보디아 주둔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1991년에는 中國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특히 베트남정부는 美國이 Embargo를 해제 할 경우 베트남 전쟁중에 美國기업이 시추작업을 벌였던 Vung Tau 지역의 조광권을 美國기업에게 부여 하겠다는 호혜조건까지 제시하였다.

한편 美國정부도 베트남정부와 1986년부터 1,700

명의 베트남전 실종미군(MIA) 및 전쟁포로(POW)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았는데 1991년에는 하노이에 美國정부 임시사무소를 설치 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1. 4에 美國정부가 베트남과의 수교조건으로 제시한 「4단계 관계정상화 방안」¹⁾중에 가장 어려운 難題인 캄보디아 内戰도 美國의 의도대로 1991. 10에 파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평화준비회의(PICC)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므로 美國의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의 해제는 물론 관계 정상화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아시아의 마지막 개방국이자 풍부한 자원 부존국인 베트남의 최근 국제 관계발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정부는 소련이 개발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Vietsovpetro로부터 회수한 Vung Tau지역의 4개 광구를 비롯해 대륙붕 광구에 대한 국제입찰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어서 서방국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베트남의 석유개발과정, 외국인의 석유개발투자 현황, 석유개발계약 등을 살펴봄으로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석유개발과정

(1) 사이공정부 시대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프랑스식민지 시대인 1940년대 초에 바닷물에 가끔 기름이 또는 것을 보고 프랑스인이 쿠논(Qui Nhon) 해안에서 처음으로 석유탐사를 실시하였으나 석유 매장량이 상업적 생산은 할 수 없는 소량으로 확인되어 개발을 중지하였다. 그 후 1966년에 ECAFE(현재 ESCAP)가 남지나해안 140km에 대한 자력탐사와 657km의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 막대한 양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발표하자, 1967-1969년에는 英國정부의 지원을 받아 4,000km에 달하는 대륙붕에 대한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봉따우(Vung Tau) 남쪽지역에 4-5km의 두꺼운 유전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69년에 11개 외국 석유회사가 공동으로 Ray Geophysical社를 고용하여 실시한 8,406km에 달하는 베트남 대륙붕에 대한 지진파탐사의 결과로 남부 대륙붕에 6km, 태국만에 연한 서부대륙붕에 2-4km, 그리고 메콩델타 지역에

4-5km의 두꺼운 침전층이 형성되어 있어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Mobil, Esso, Pectern, Shell등 20여개의 외국석유회사들이 석유탐사에 참가하므로 베트남 석유개발은 본격화되었다. 사이공 정부는 1971년에 외국기업에 대한 조광권(Special Lease)의 부여 조건 등을 규정한 石油法을 제정하고 대륙붕 광구에 대한 국제입찰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Esso, Pectern, Mobil 및 Sunning 등의 4개 그룹에게 8개 광구에 대한 조광권(Special Lease)을 부여하였으며, 1974년에는 Mobil, Pectern, Union 및 Marathon등의 4개 그룹에게 또다른 8개 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어 서방기업들은 철수하였고 사이공정부의 석유개발은 시굴단계에서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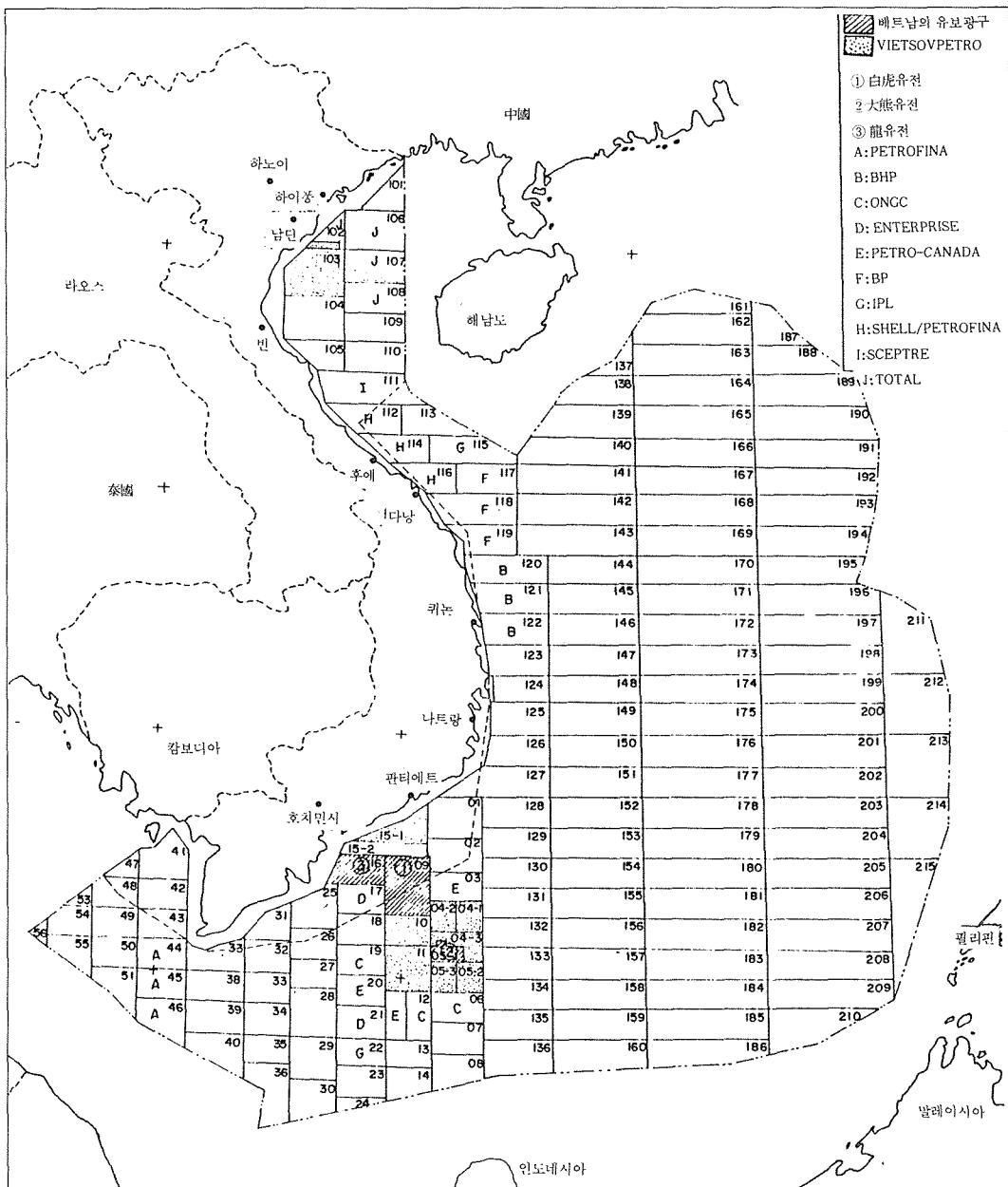
(2) 하노이정부 시대

통일을 이룩한 하노이정부는 베트남 전쟁중에 서방기업들이 석유부존을 확인한 Vung Tau지역의 석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국가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본供給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7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西獨, 이탈리아, 캐나다, 英國 등의 석유 메이저들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해 석유탐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으로 다시 철수하고 말았다. 그 후 베트남의 유전개발은 1981년에 베트남과 소련의 합작기업으로 설립한 Vietsovpetro가 약 59,000km의 석유탐사를 실시하여 1984년에 봉따우 해안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곳에서 매장량 3억배럴가량의 白虎유전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 제정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西方石油 메이저들의 석유탐사 및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0년 말까지 10건의 유전개발계약이 체결되고 투자자금은 53,000만 달러에 달했다.

2. 외국기업의 석유개발투자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다음 <그림-1>에서 처럼 북부의 Tonking만 지역, Hanoi의 紅江 삼각주 지역, 남부의 Vung Tau지역, South Con Son 지역, 중부의 Hue지역 등 5개 대륙붕지역으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

〈그림-1〉 베트남의 대륙붕 광구 현황



다. 5개 대륙 봉 지역 중 가장 유망한 광구는 *Vietsovpetro*가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봉따우 지역의 白虎유전 (*Bach Ho* ; White Tiger), 大熊유전 (*Dai Hung* ; Big Bear), 龍유전 (*Rong* ; Dragon) 등이며 이들 3개 유전의 잠재 매장량은 다음(표-1)에서와 같이 5~7.8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개발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프랑스 Total社는 통킹만 지역의 석유탐사와 더불어 Vietsovpetro와 기존광구의 공동개발을 협상중에 있고 英國의 Enterprise Oil社는 1990년 말에 봉따우지역에서 베트남의 개방정책 후 처음으로 油井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1990년 상

〈표-1〉 Vung Tau지역의 유전현황

	생산량(만 b/d)			매장량	정제능력(1990)
	1989	1990	1991	백만 배럴	b/d
白虎유전	3.2	5.2	7.5	175-300	800
大熊유전	-	-	5.0	250-350	-
龍유전	-	-	-	75-125	-
 	 	 	 	 	
 	 	 	 	 	
 	 	 	 	 	
 	 	 	 	 	
 	 	 	 	 	
 	 	 	 	 	
 	 	 	 	 	
 	 	 	 	 	
 	 	 	 	 	
 	 	 	 	 	
 	 	 	 	 	
 	 	 	 	 	
 	 	 	 	 	
 	 	 	 	 	
 	 	 	 	 	
 	 	 	 	 	
 	 	 	 	 	
 	 	 	 	 	
 	 	 	 	 	
 	 	 	 	 	
 	 	 	 	 	
 	 	 	 	 	
 	 	 	 	 	
 	 	 	 	 	
 	 	 	 	 	
 	 	 	 	 	
 	 	 	 	 	
 	 	 	 	 	
 	 	 	 	 	
 	 	 	 	 	
 	 	 	 	 	
 	 	 	 	 	
 	 	 	 	 	
 	 	 	 	 	
 	 				

투자의 최우선 장려분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보오크사이트, 구리, 아연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세계상의 우대조치²¹를 부여하였다. 더욱이 서방석유 메이저들의 석유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외국파트너에게 유리한 生產物分配契約(*Product Sharing Contract*)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석유탐사사업을 수행한 외국회사가 油井을 발견한 경우 어떤 형태의 세금이나 로얄티도 납부하지 않고 그 유전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2) 시추탐사기간은 3년인데 그 후 탐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생산원유의 40% 까지 비용원유(Cost Oil)로 분배가 보장되어 단시일 내에 탐사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

(4) 탐사비용을 완전히 회수한 후 생산물 분배비율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외국파트너의 배당비율을 원유생산량의 30~35%로 비교적 높게 정형화하고 소량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이 감소할 경우에도 외국 파트너에게 보다 높은 배분비율을 보

〈표-2〉 베트남의 석유개발투자 현황

투자업체	계약체결일	투자광구
Vietsovpetro (소련)	1981. 11	Vung Tau(白虎, 大熊, 龍油田) 광구번호 : 9, 16, 05-1
Hydrocarbons India (인도) (Oil & Natural Gas Commission)	1988. 5	South Con Son 6, 12, 19
Royal Dutch Shell (66.7%) Pertrofina (33.3%) (화란, 영국, 벨기에)	1988. 6	Tongkin灣 112, 114, 116
Total cie Francaise des Petroles (50%) London & Scottish Marine Oil (25%) Repsol Exploracion SA (25%) (프랑스, 영국, 프랑스)	1988. 11	Hanoi/Red River 102, 106, 107, 108
British Petroleum (100%) (영국)	1989. 2	Hue; 117, 118, 119
Enterprise Oil (70%) Compagnie Europeene des Petroles (30%) (영국, 프랑스)	1989. 4	Vung Tau 17, 21
Clyde Petroleum plc. (27%) International Petroleum Ltd. (34%) Swedish Expl. Cons. AB (19%) Oversea Petr. & Invest. Corp. (20%) (영국, 스위스, 스웨덴, 대만)	1990. 2	HUE 115
Sceptre Resources Ltd. (100%) (캐나다)	1990. 2	Tong King灣 111
Petro-Canada Exploration Inc (50%) Husky International Inc (25%) Kuwait Foreign Petr. Expl. Co (25%) (캐나다, 캐나다, 쿠웨이트)	1990. 5	Vung Tau 3, 12, 20
Petrofina (100%) (벨기에)	1990. 11	Vung Tau 45, 46, 49, 50, 51, 53, 54, 55
BHP Petroleum Pty Ltd. (100%) (호주)	1991. 1	Hue 120, 121, 122

〈자료〉 Asian Oil & Gas 1991, Energy Economist 1991. 4

〈표-3〉 베트남의 석유생산 추이

(단위 : 10,000톤)

	1986	1987	1988	1989	1990	1992	1995	2000	2030
생산량	4	27	70	100	250	400	600~800	1,200~1,500	2,000~3,000

장하고 있다.

(5) 생산기간은 탐사기간 5년을 포함하여 25년이나 자원개발, 대형설비투자 등과 같이 오랜 사업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년까지 연장이 보장되고 있다.

(6) 석유개발사업은 정당한 보상이 없이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조치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5. 韓國기업의 진출방안

최근에 급속한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1991년 내에는 해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하게 전망해 왔던 *Embargo*를 1991. 9. 18로 1년 시한이 끝나도록 미국정부는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1년이 더 연장되고, 그동안 베트남의 석유개발참여를 위해 콘소시엄을 구성한 油開公을 비롯한 현대, 삼성, 대우 등 8개 기업들에게는 실망과 투자계획의 차질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美國정부는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냉전체제의 붕괴, 걸프전의 승리로 인한 베트남 컴플렉스의 극복,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7,000만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금수조치해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경제계와 의회의 압력 등을 더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미

국과 베트남간의 국교정상화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美國의 *Embargo* 눈치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국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유리한 투자의 先占機會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기업들은 *Embargo* 암말로 비즈니스의 찬스라는 것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유망한 참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1) 1991. 4에 미국정부가 제시한 4단계 관계정상화 방안이란 ① 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후 관계정상화 논의 시작, ② UN 감시하에 캄보디아 임시정부 구성과 MIA 및 POW의 처리협조에 따른 *Embargo* 부분해제, ③ 캄보디아 임시정부의 6개월 이상 지속과 *Embargo* 완전해제, ④ 캄보디아의 자유총선 실시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및 베트남에 대한 최혜국 대우부여 등이다.

2)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기타 천연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관행에 따라 법인세를 25%이상 높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을 특별투자우대부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10~14%로 감면하고 최초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후 4년간은 50%를 감세해 주고 있다.

□근 간□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1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